

# 부모의 양육방식이 성별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난희\*, 송태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for adolescent

Nan Hee Yee\*, Tae-min Song\*\*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is aimed at exploring the temporal developmental relationship of adolescent depression and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to examine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The middle school students of the 2011-2013 1st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data were used for analysis and the sample consisted of 2,073 individuals. **Methods:** Research questions were answered through the Latent Growth Model and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Results:** As the results of the Latent Growth Model show, adolescent depression declines as time goes by an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epression felt by individuals. A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nd multiple group analysis were executed by gender. The results show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Parental neglect has shown differences influencing adolescents depression between males and females. However, in case of parental abuse, no differences between males and females were observed.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 policy on depression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when preparing for interventions targeting adolescents by gender.

**Key words:** Abuse, Adolescent,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Depression, Neglect

## I. 서론

청소년의 건강은 향후 국민 건강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2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66.9%가 '전반적인 생활'이나 '학교생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11.2%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3). 특히 2013년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은 28.5이며, 이 중 10-19세 청소년 자살률은 4.9명, 20-29세는 18.0명(Statistics Korea, 2014)으로 OECD의 평균 자살률 12.1명(OECD, 2014)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우울은 자살의 주요 위험요인이라는 여러 연구가 있다(Kahng, 2010; Kim, 2002; Seo, et al, 2013). 경제적인 침체 또한 사회적 통합을 약하게 하고, 전통적인 가족 내 결속력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자살률이 증가한 것과도 관련성이 있다(OECD, 2013). 도시집중화, 인터넷의 대중매체화, 경쟁사회의 심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도 이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높아, WHO에서는 우울이 세 번째로 사회적 부담이 큰 질환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WHO, 2008).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나 양육방식이 자녀의 발

Corresponding author : Tae-min Song

Building D, 370, Sicheong-daero, Sejong City 339-007, Korea

주소: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Tel: +82-44-287-8201 Fax: +82-44-287-8063 E-mail: tmsong@kihasa.re.kr

\* 본 논문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10114-14-1016,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위기청소년 예측 및 적시대응기술 개발 사업]과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 Received: January 30, 2015

• Revised: March 23, 2015

• Accepted: March 26, 2015

달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가족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그러나 그 역할은 무엇보다도 크며, 가정의 환경은 각 개인에게 있어 중요하다. 특히 가정의 문제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여러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가족문제에 의해 사회적 고립이나 대인관계 악화(Forthofer, 1996)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위기청소년의 가정환경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가정생활만족도가 낮고,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며, 부모로부터 폭행을 많이 당하고, 부모와의 갈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 Yoon, 2007). 부모의 역할과 정서가 자녀의 성취 목표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Dweck, 1986; Elliot, 2005; Wigfield, et al, 2006), 부모의 참여가 자녀의 숙달목표(mastery goals)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uchesne & Ratelle, 2010). Steinberg 등(1989)은 따뜻하고 민주적이며, 확고한 부모를 가진 청소년들은 또래보다 더 긍정적이며, 신념 성취에 있어서도 긍정적이어서, 결과적으로 학교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먼저 사회를 습득하게 되고, 부모로부터 롤모델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방임, 학대, 가정폭력 등과 같은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우울, 사이버 비행 등에 영향을 미친다(Scott, et al., 2007; Park, 2014; Kim & Cha, 2014; Kwak & Chung, 2011; Moon & Moon, 2011). Kim & Lee(2008)은 부모의 양육태도 조합패턴 유형과 자녀의 학교 적응 수준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서 Kim, et al.(2014)은 중학생이 경험한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교우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Jeong(2009)는 청소년 비행의 발달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학대를 가족요인 중 하나로 보기도 하였다. 또한 부모의 아동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휴대폰 중독, 학업성적, 우울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며(Jung, et al, 2014; Kwon et al., 2013; Kim & Kim, 2013), 성장 후,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대인관계에 문제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Kim, 2014). 부모의 학대를 받은 아동의 성장결과는 후기 삶의 질병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고(Park, 2014; Shalev et al, 2012), 부모와의 유대관계는 범죄율(Lee & Lee, 2012)과도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성

별로도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won & Lee(2006)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있어서 청소년의 충동성, 부모의 양육태도, 개인의 통제력,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성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Kim & Park(2000)은 청소년의 음주와 비행 간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부모 양육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성별로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강하고,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에서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Kim & Oh(2014)는 가족내 위협요인이 청소년의 정서에서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고도 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에게는 여러 위협요인들이 존재해 있어 위기청소년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부처(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별로 적시 대응이 가능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 중에 있다. 이는 청소년의 문제가 단순하게 개인적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정책적으로도 개입해야 할 사안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책적인 개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청소년이 위기 청소년으로 가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 본다.

최근 청소년 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을 주제로 한 중단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Kim et al., 2008; Choi & Kim, 2009; Lee, et al, 2011; Cho & Kim, 2010). 그러나 청소년의 가정환경 특히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른 청소년의 우울간의 인과관계를 중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이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관련한 중단자료의 구축이 어려웠던 이유도 있겠으나, 아직은 청소년 관련 중단연구가 초기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 집단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데이터의 특성을 살펴보고, 부모의 양육방식, 즉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방임과 학대에 따른 남녀 청소년의 우울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청소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수요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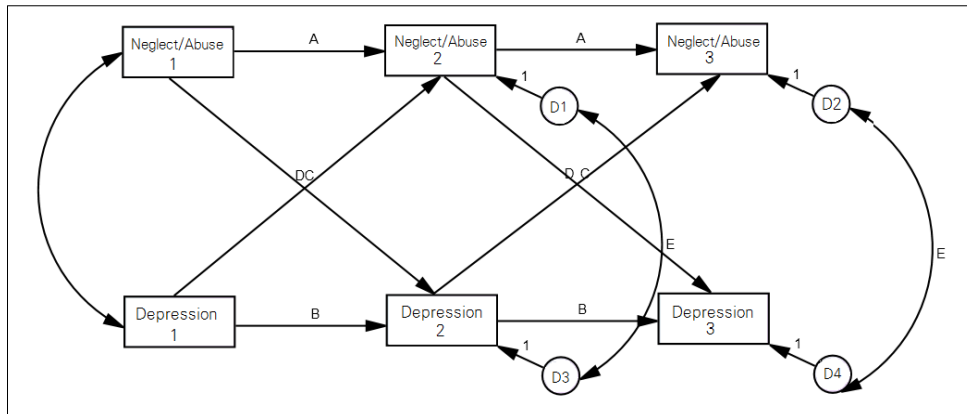
## II.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집한 종단적 자료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의 중1 패널의 2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3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2010년에 시작하여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장·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y)와 관련 정책 개발에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NYPI, 2014). 원 자료는 전국에 걸쳐 층화다단계집락추출법(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으로 표집되었고, 학교방문을 통한 집단면접조사 방식으로 설문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자료 2,351명 가운데 응답에 결측치가 있는 사례를 제외한 총 2,073명(남학생 1,062명, 51.2%, 여학생 1,011명, 48.8%)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2. 연구모형 및 방법

본 연구의 모형은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남녀 청소년의 시간에 따른 부모의 양육방식(방임, 학대)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사용하였으며, 남녀 청소년의 우울과 부모의 양육방식(방임, 학대)간의 상호관계 파악은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세 번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종단자료나 패널자료에 대하여 집단평균 또는 개인에 대한 변화량을 연구하는 방법(Duncan et al., 1999)이고,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변수간의 비제귀적 관계를 종단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잠재성장모형은 종단자료를 통해 안정성과 변화율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Duncan & Raudenbush, 1999; Dekovic, Buist & Reitz, 200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종단적이고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고,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Song & Kim, 2012).



[Figure 1] Research model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RCL)

### 3. 변수 설정 및 정의

본 연구의 분석에서 독립변수는 부모의 양육방식(방임, 학대)이고, 종속변수는 우울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AMOS 잠재성장모형 및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하였다. 이들 각각의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우울

우울 변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조사한 10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즉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걱정이 많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울기를 잘 한다’,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외롭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모든 일이 힘들다’ 등 10문항을 역 코딩한 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문항평점 1-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울·불안이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연도별로 각각 .659, .579, .665였다.

## 2) 부모의 양육방식(방임, 학대)

부모의 양육방식으로는 방임과 학대 변수를 사용하였다. 방임은 양육자의 부모역할에 대한 소극적인 태만 행위로서 물리적, 교육적, 의료적으로 청소년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측정방식으로는 자녀들이 지각한 부모들의 양육방식을 측정하였는데, 부모의 양육방식을 부모 자신의 보고보다는 아동의 보고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따른 것이다(Schaefer, 1965). 학대와 방임은 Heo(2000)의 척도를 참고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NYPI, 2011). 본 연구에서 방임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 등 총 4개 문항이며, 응답범주는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로 되어 있다. 방임은 이들 4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값은 연도별로 각각 .566, .488, .548이었다.

학대는 양육자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이다. 원 설문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범주는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이다. 학대는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무조건 때리려 하신다’,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등 4개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 정도가 높도록 모두 역코딩하였으며, Cronbach's  $\alpha$ 값은 연도별로 각각 .590, .517, .535이었다.

## 4. 연구내용

본 연구인 청소년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 우울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장궤적 및 인과성 검증을 위해 잠재성장모형 및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우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성장궤적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개인간 우울의 시간별 변화 유형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청소년의 우울 수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인가?

넷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인가?

다섯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여섯째, 청소년의 우울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Ⅲ. 연구결과

### 1. 기술통계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의 2차부터 4차까지 3년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최종 분석대상자는 중1패널 2,351명 중 우울문항과 자녀양육(방임, 학대)문항에 모두 응답한 남학생 1,062명(51.2%), 여학생 1,011명(48.8%)이었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검증은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관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 순으로 검증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관측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측정동일성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경로동일성 검증으로 시점 [t-1]의 변수가 시점 [t]의 변수에 영향을 주는 효과와 시점 [t]의 변수가 시점 [t+1]의 변수에 주는 효과가 동일한지를 검증하였다. 또 각 시점에서 설정된 오차간의 공분산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6개의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 1.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본모형(비제약모형)

모형 2. 부모 양육방식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3. 우울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4. 부모 양육방식에서 우울에 대한 교차회귀계수(C)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5. 우울에서 부모 양육방식에 대한 교차회귀계수(D)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6. 우울과 부모 양육방식의 오차공분산 사이(E)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에 앞서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를 살펴본 우울과 부모 양육방식의 연차별 변인들의 왜도는 절대값 3 미만, 첨도는 절대값 10 미만으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여, 구조방정식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수행하는데 극단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Table 1),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들간 모두 선형적 관계이며,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Total				Male				Female				t-test
		Mean	S.D.	Skewness	Kurtosis	Mean	S.D.	Skewness	Kurtosis	Mean	S.D.	Skewness	Kurtosis	
Depression	Depression 1	1.92	0.61	0.130	-0.376	1.84	0.60	0.382	-0.283	2.01	0.61	0.130	-0.376	-6.48 ***
	Depression 2	1.99	0.62	0.254	-0.386	1.89	0.61	0.306	-0.278	2.08	0.63	0.086	-0.360	-6.88 ***
	Depression 3	1.88	0.56	0.200	-0.365	1.79	0.54	0.255	-0.450	1.98	0.57	0.052	-0.445	-8.03 ***
Neglect	Neglect 1	1.87	0.58	0.168	-0.476	1.91	0.59	0.467	0.828	1.83	0.57	0.421	0.519	2.90 **
	Neglect 2	1.84	0.55	0.450	0.695	1.85	0.56	0.364	0.682	1.83	0.54	0.117	-0.006	0.85
	Neglect 3	1.93	0.50	0.252	0.381	1.95	0.51	0.010	0.480	1.91	0.49	-0.105	0.239	2.07 *
Abuse	Abuse 1	1.83	0.71	-0.037	0.383	1.96	0.74	0.786	0.135	1.69	0.65	1.249	1.533	8.73 ***
	Abuse 2	1.83	0.72	0.991	0.617	1.94	0.74	0.821	0.189	1.72	0.68	1.181	1.173	6.89 ***
	Abuse 3	1.67	0.62	0.978	0.546	1.77	0.65	0.958	0.712	1.57	0.56	1.272	1.868	7.36 ***

\*\*\* p<0.001, \*\* p<0.01, \* p<0.05

## 2. 청소년의 우울변화에 대한 예측요인 분석

### 1) 청소년 우울의 발달궤적 분석

청소년 우울의 발달궤적을 살펴보기 위해 3차년에 걸친 청소년 우울과 부모양육방식에 대한 무조건모형을 설정하였다. Table 2와 같이 청소년의 우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별, 성별 차이를 보였다. 즉 남녀 청소년의 우울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초기치와 변화율의 공분산 관계가 부(-)적이고 변화율 평균이 부(-)적으로 나타나 1차년도 우울이 높은 청소년들은 시간이 갈수록 변화율이 낮아져 감소속도가 낮으며, 1차년도 우울이 낮은 청소년들은 시간이 갈수록 변화율이 높아 감소폭이 크게 낮다. 즉 1차년도에 우울이 높을 경우 3차년도에는 우울이 조금 줄어든 반면, 1차년도에 우울이 낮은 경우, 3차년도 우울이 크게 줄었다

고 해석된다.

남학생 청소년의 우울은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초기치의 평균은 1.87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03씩 감소하였다. 그리고 우울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초기의 우울은 개인별 차이를 보였으며, 변화율에도 개인별 차이를 나타냈다. 분산은 초기치에만 평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남자 청소년의 우울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계수는 -.5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1차년도 우울이 높을 경우 해가 갈수록 그 감소폭이 적었다. 여자 청소년의 우울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초기치의 평균은 2.04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01씩 감소하였다. 여자 청소년에서는 분산에서 초기치와 변화율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개인별 차이를 보였으나, 평균에서는 초기치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여자 청소년 우울의 초기치와 변

화율의 상관계수는 -.48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1차년도 우울이 높을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증가 폭도 적게 나타났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방임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초기치의 평균은 1.88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14씩 증가하였다. 그리고 평균이 초기치와 변화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초기 및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별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분산은 초기치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부모의 방임에 있어서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계수는 -.76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1차년도 방임이 높을 경우 해가 지남에 따라 그 증가폭이 적게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방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초기치의 평균은 1.83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04씩 증가하였다. 여자 청소년에서는 부모의 방임이 평균과 분산 초기치와 변화율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개인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자 청소년 우울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계수는 -.5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1

차년도 방임이 높을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증가 폭도 적게 나타났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대는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초기치의 평균은 1.96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11씩 감소하였다. 그리고 학대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방임의 초기 및 변화율에 개인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학대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계수는 -.4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1차년도 방임이 높을 경우 해가 갈수록 그 감소폭이 적었다. 여자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학대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초기치의 평균은 1.69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05씩 감소하였다. 여자 청소년에서는 평균과 분산에서 초기치와 변화율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개인별 차이를 보였다. 여자 청소년 우울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계수는 -.38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1차년도 학대가 높을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증가 폭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Fitness indices and rate of change of LGM (unconditional) for Adolescent depression and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Coefficient of rate of change	$\chi^2$	NFI	TLI	CFI	RMSEA	Initial value		Rate of change		Covariance	
							Mean	Variance	Mean	Variance		
Male	Depression	0. 1. 2	48.14	.906	.911	.911	.119	1.87 ***	.18 ***	-.03 **	.01	-.02 *
	Neglect	0. 1. 2	32.24	.900	.908	.908	.096	1.88 ***	.14 ***	.03 *	.01	-.02 **
	Abuse	0. 1. 1	69.73	.798	.805	.805	.145	1.96 ***	.23 ***	-.11 ***	.07 *	-.06 *
Female	Depression	0. 1. 2	46.20	.933	.937	.937	.119	2.04 ***	.22 ***	-.01	.01 *	-.03 **
	Neglect	0. 1. 1	36.17	.919	.925	.925	.105	1.83 ***	.17 ***	.04 *	.06 ***	-.06 ***
	Abuse	0. 1. 1	96.68	.761	.767	.767	.176	1.69 ***	.18 ***	-.05 *	.05 *	-.04 *

\*\*\* p<0.001, \*\* p<0.01, \* p<0.05

2)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 우울변화간의 관련성

청소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부모 양육방식인 방임과 학대의 잠재성장곡선 간 인과모형의 적합도를 검증(남학생: 방임  $\chi^2=74.76$ , NFI=.924, TLI=.871, CFI=.931, RMSEA=.089; 학대:  $\chi^2=144.77$ , NFI=.863, TLI=.754, CFI=.869, RMSEA=.127; 여학생 방임  $\chi^2=19.35$ , NFI=.985, TLI=.974, CFI=.990, RMSEA=.047; 학대  $\chi^2=49.11$ , NFI=.962, TLI=.916, CFI=.966,

RMSEA=.084)하여 두 요인간의 잠재성장곡선 간 인과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부모의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방임 초기치→우울변화율의 경로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여 방임이 높은 학생의 초기 우울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방임변화율→우울변화율의 경로는 여학생에서만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방임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대초기치→우울변화율의 경로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을 보여 부모의 학대가 높은 학생의 초기 우울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학대변화율→우울변화율의

경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부모의 학대가 클수록 남녀 청소년의 우울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Table 3> Path figures of LGM for adolescent depression and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by gender

	Path	B	$\beta$	S.E.	C.R.	P
Male	Neglect ICEPT → Depression ICEPT	.547	.448	.073	7.481	***
	Neglect ICEPT → Depression SLOPE	.018	.035	.087	.209	.834
	Neglect SLOPE → Depression SLOPE	1.257	.715	.755	1.666	.096
	Abuse ICEPT → Depression ICEPT	.374	.460	.062	6.039	***
	Abuse CEPT → Depression SLOPE	.020	.063	.042	.477	.633
	Abuse SLOPE → Depression SLOPE	.349	.760	.088	3.954	***
Female	Neglect ICEPT → Depression ICEPT	.609	.447	.076	7.992	***
	Neglect ICEPT → Depression SLOPE	.019	.035	.054	.353	.724
	Neglect SLOPE → Depression SLOPE	.583	.546	.218	2.669	***
	Abuse ICEPT → Depression ICEPT	.484	.455	.069	7.018	***
	Abuse ICEPT → Depression SLOPE	.010	.024	.040	.257	.797
	Abuse SLOPE → Depression SLOPE	.337	.560	.068	4.979	***

## 2. 부모의 양육방식(방임, 학대)과 청소년의 우울간 자기회귀교차지연 모델 검증

부모의 양육방식(방임, 학대)과 청소년의 우울간 자기회귀교차지연 6개 모형 가운데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모형 1에서 모형 6까지 순차적으로 비교하였다. 모형 비교는  $\chi^2$  및 다른 적합도지수(NFI, TLI, CFI, RMSEA, RMR)<sup>2)</sup>를

사용하였다. 동일화 제약을 가하여 적합도 지수가 나빠지지 않아 동일성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차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6도 모형 5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방임과 학대 모두에 대해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모형 6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2) 모형의 적합도는 구축한 모형과 실제 자료 사이의 일치도를 나타내며, 최적모형 판단기준은 NFI(Normed Fit Index)≥0.9(양호), TLI(Tucker-Lewis Index)≥0.9(양호), CFI(Comparative Fit Index)≥0.9(양호),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0.05(좋음), RMR(Root Mean Squared Residual)≤0.05(양호)(Song & Kim, 2012)

&lt;Table 4&gt; Multi-fitness comparison of ACLM for adolescent depression and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Model	$\chi^2$	df	NFI	CFI	TLI	RMSEA	RMR
Neglect	Model 1	167.26	8	.927	.929	.736	.098	.016
	Model 2	171.16	11	.925	.929	.807	.084	.016
	Model 3	188.86	14	.917	.923	.834	.078	.018
	Model 4	195.04	17	.915	.921	.861	.071	.020
	Model 5	201.13	20	.912	.920	.880	.066	.021
	Model 6	206.32	23	.910	.919	.894	.062	.020
Abuse	Model 1	186.94	8	.921	.923	.712	.104	.021
	Model 2	188.69	11	.920	.924	.792	.088	.021
	Model 3	205.22	14	.913	.918	.824	.081	.023
	Model 4	212.22	17	.910	.916	.852	.074	.025
	Model 5	212.31	20	.910	.917	.876	.068	.025
	Model 6	229.41	23	.903	.911	.994	.066	.026

최종모형으로 선정된 모형 6의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집단간 경로계수는 <표 5>와 같다. 먼저 청소년의 성별 시간 변화에 따른 부모의 방임과의 관계는 강한 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시간변화에 따른 우울과의 관계도 강한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과 우울 사이의 교차관계 또한 남녀 학생 모두 강한 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부모의 방임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보다 우울이 방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경로계수의 비교에서는 모든 경로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로가 더 강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별 변화에 따른 부모의 학대와 청소년의 우

울 관계는 강한 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시간변화에 따라서도 강한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와 우울 사이의 교차관계는 여학생에서만 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부모의 학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보다 우울이 부모의 학대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방임 사이의 교차관계는 강한 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보다 청소년의 우울이 부모의 학대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경로계수의 비교에서는 여학생에서의 경로가 남학생에 비해 더 강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Parameter estimation of ACLM between adolescents depression and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Pathway	Male			Female			C.R. <sup>1)</sup>	
	B	(β)	C.R.	B	(β)	C.R.		
Neglect	Neglect 1 → Neglect 2	0.308	(0.326)	15.979 ***	0.362	(0.381)	18.989 ***	1.983 ***
	Neglect 2 → Neglect 3	0.308	(0.335)	15.979 ***	0.362	(0.400)	18.989 ***	
	Depression 1 → Depression 2	0.408	(0.406)	21.757 ***	0.475	(0.472)	24.877 ***	2.514 ***
	Depression 2 → Depression 3	0.408	(0.455)	21.757 ***	0.475	(0.501)	24.877 ***	
	Neglect 1 → Depression 2	0.053	(0.052)	2.684 **	0.110	(0.103)	5.258 ***	1.987 ***
	Neglect 2 → Depression 3	0.053	(0.055)	2.684 **	0.110	(0.103)	5.258 ***	
	Depression 1 → Neglect 2	0.079	(0.085)	4.295 ***	0.113	(0.127)	6.509 ***	1.353
	Depression 2 → Neglect 3	0.079	(0.093)	4.295 ***	0.113	(0.141)	6.509 ***	
Abuse	Abuse 1 → Abuse 2	0.320	(0.324)	16.259 ***	0.348	(0.335)	17.967 ***	1.011
	Abuse 2 → Abuse 3	0.320	(0.354)	16.259 ***	0.348	(0.414)	17.967 ***	
	Depression 1 → Depression 2	0.413	(0.417)	21.625 ***	0.489	(0.489)	25.248 ***	2.791 ***
	Depression 2 → Depression 3	0.413	(0.450)	21.625 ***	0.489	(0.512)	25.248 ***	
	Abuse 1 → Depression 2	0.014	(0.018)	0.913	0.038	(0.040)	2.122 **	.990
	Abuse 2 → Depression 3	0.014	(0.019)	0.913	0.038	(0.044)	2.122 **	
	Depression 1 → Abuse 2	0.063	(0.052)	2.601 **	0.083	(0.074)	3.887 ***	.615
	Depression 2 → Abuse 3	0.063	(0.057)	2.601 **	0.083	(0.088)	3.887 ***	

주: \*\*\* p<0.001, \*\* p<0.01, \* p<0.05, B: 비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1) C.R.: 집단간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s

#### IV. 논의

여러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특성이 다름을 보고한 바 있다(Kwon & Lee, 2006; Kim & Park, 2000).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이론적 설명을 통해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우울간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들의 우울은 부모의 양육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성별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우울한 청소년들은 우울 증상은 표면상으로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울과 함께 발현되는 다른 증상으로 인해 부모의 양육방식 역시 부정적으로 증가된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우울은 다른 문제의 합병증과 동시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녀의 우울에 대한 부모의 관찰이 특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자녀의 우울과의 관계는 인과적으로 그 의미가 유의하고 그 영향력이 크지만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변수들과 개인적인 변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해 청소년의 우울과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정책적 함의에 대해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과 양육방식의 상호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모두 중요한 인과적 관계로 검증이 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우울과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문제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책적으로 우울 및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개입 및 접근을 할 때에는 두 변인을 함께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종단적 자료를 통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청소년들의 우울과 부모의 양육방식간 인과적 관계를 검증한 연구이다. 청소년의 우울과 부모의 양육방식은 청소년

년 시기에 있어서 한 시점에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개입은 부모와의 관계 확립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우울정책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울과 부모의 양육방식의 연구에 있어서 두 변인으로서의 관계만을 검증하는 연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즉, 우울과 부모의 양육방식의 관계에서 제3의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또 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 가운데 20-24세 청소년의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가장 높은 14.5명으로 매우 높아(Statistics Korea, 2014), 이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탐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통해 향후 연구를 제안한다면, 첫째, 청소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예: 인구사회학적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 등)을 통제하지 않고 청소년의 우울과 부모의 방임과 학대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만 살펴본 것으로, 이후 연구에서는 여러 변수들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며, 또 성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용어 해석에 대한 제한점으로, 본 연구에서의 우울은 정서문제로서의 우울로, 병리적인 우울증과는 차이가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도 자녀가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가 인지하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방식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V. 결론

사회가 점차 경쟁화되면서, 1차적인 사회인 가정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강조되고 있으며, 우울은 청소년기에 있어서 정신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가정 환경도 과거 가부장적인 부계 사회에서 점차 벗어나, 핵가족화, 소자녀화와 더불어 자녀중심의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이 많은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기청소년으로 정의하고, 복지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위기청소년의 양산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우울과 부모의 양육방식은

단순히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작용을 통한 상호교환적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인 관계로 설명될 수 없으며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즉 청소년의 우울과 부모의 양육방식에 있어서 개인적인 특성은 물론 친구관계, 가족, 학교와 같은 통합적인 상황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밝혀내기도 쉽지 않다. 본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우울과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여러 견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 측정된 자료를 토대로 종단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우울과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이며,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청소년 우울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 Reference

- Cho, C. B., & Kim, D. K. (2010).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Adolescents Adapt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2*(4), 207-229.
- Choi, H. C., & Kim, O. J. (2009). Exposure to Stress, Stress Generation, and Reciprocal Effects in Adolescent Stress and Depression: A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pproach to Longitudinal Analysis. *Studies on Korean Youth, 20*(3), 401-429.
- Duchesne, S., & Ratelle, D. (2010). Parent behaviors and adolescents' achievement goals at the beginning of middle school: Emotional problems as potential mediato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2*(2), 497.
- Jeong, S. H. (2009).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Delinquency Trajectories. *Studies on Korean Youth, 20*(2), 31-64.
- Jung, J. Y., & Kim, J. N. (2011). Gender differences in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parental behavior,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behavioral inhibition and depression in early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12), 227-254.
- Jung, P. H., Nho, C. R., Lee, K. S., Sung, M. H., & Song, J.D. (2014).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on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 Abuse and Neglect and Cell Phone Addiction: Gender Comparison.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47*, 93-122.
- Kahng, S. K. (2010). Does Depression Predict Suicide?: Gender and Age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Attitud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 41(2), 67-100.
- Kim, E. Y., & Oh, K. J. (2014). Effects of the familial risk factors o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xecutive function. *Studies on Korean Youth*, 25(2), 79-113.
- Kim, H. S. (2002). A study on Epistemology of Korean Elder's Suicidal Thought.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2(1), 159-172.
- Kim, J. G., & Lee, K. H. (2011). Relationships between Combinational Pattern of Parenting Styles and Middle School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9(3), 1183-1200.
- Kim, J. H., & Kim, J. N. (2014).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lex Trauma in Childh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after Growing Up.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5), 115-139.
- Kim, J. Y., & Kim, S. H. (2013). The effect of neglect in childhood on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cusing on the tourism related department's students. *Tourism Research*, 38(4), 383-403.
- Kim, K. H., & Cha, E. J. (2014). Effects of Parents' Rearing Attitudes o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Cyber Delinquency: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tress and Moderating Effect of School Level.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2), 27-54.
- Kim, S. H., Yim, H. R., & Chung, L. J. (2014). The pathways from child maltreatment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middle school. *Studies on Korean Youth*, 25(4), 5-33.
- Kim, Y. H., Kwon, S. M., & Seo, S. G. (2008).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Peer Relationship Problems and Depression/Anxiety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Studies on Korean Youth*, 19(4), 57-79.
- Kim, Y. S., & Park, M. S. (2000). Parenting as a Common Factors to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 Focusing on adolescents' drinking and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2, 83-106.
- Kwak, Y. H., & Chung, H. H. (2011).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Temperament and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on Depression: Mediating Effect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8), 45-64.
- Kwon, J. E., Lee, E. J., & Nho, C. R. (2013). Mediating Effects of Teacher and Peer Relationship on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 Abuse and Neglect and School Performanc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42, 29-54.
- Kwon, J. H., & Lee, E. H. (2006). The effects of impulsivity,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control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Studies on Korean Youth*, 17(1), 325-351.
- Lee, J. H., & Lee, D. H. (2012). Theft adolescents' self-esteem, parenting, and school adjustment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3(1), 253-275.
- Lee, J. Y., & Oh, K. J. (2011). Examination of The Temporal Developmental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Depression and Delinquency by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Multiple Group Analysis Across Gender.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2), 497-518.
- Lee, S. H., & Yoon, M.S. (2007). (A) Study on Family and School Life's Characteristic of Youth at Risk.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14(1), 89-118.
- Moon, S. K., & Moon, J. W. (2011). An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Adolescents' Delinquent Behavior.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37(2), 1-15.
- NYPI. (2014).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User's guide(1~4)*.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NYPI. (2011).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User's guide(1~4)*.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OECD(2013). *Suicides, in OECD Factbook 2013: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 Publishing. Retrieve form: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2013/suicides\\_factbook-2013-en](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2013/suicides_factbook-2013-en).
- OECD.STAT(2014). *OECD Health Status Data*.
- Park A. (2014). Domestic violence and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depressive symptom in the US: Impact across the transition to adulthood.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40, 1-36.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7-424
- Seo, S. Y., Kim, H.S., & Kim, Y.T. (2013).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in People with Mental Disorder.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24(2), 245-254.
- Shalev, I., Moffitt, T. E., Sugden, K., Williams, B., Houts, R. M., Danese, A., & Caspi, A. (2012). Exposure to violence during childhood is associated with telomere erosion from 5 to 10 years of age: a longitudinal study. *Molecular Psychiatry*, 18(5), 576-581.
- Song, T. M., & Kim, K. S. (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Health & Welfare Research*, Hannarae Publishing.
- Statistics Korea. (2013). *2012 Youth statistics*. Daejeon: Statistics Korea.
- Statistics Korea. (2014). *2013 Death and cause of death in Korea*. Daejeon: Statistics Korea.
- Steinberg, L., Elmen, J., & Mounts, N. S. (1989). Authoritative parenting, psychosocial maturity, and academic success among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0, 1424-1436.
- WHO(2008).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2004 update*, Geneva, Switzerland